

지금, 바로, 여기에 행복이 있다

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,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.

智者는 어떤 번뇌에도 걸림이 없으며, 번뇌가 일어난 자리가 곧 지혜인 줄 안다.

- 回頭是岸 :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 자리가 彼岸(사바세계 저 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)이다.

피:안 (彼岸):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일. 또는 그 경지.↔차안(此岸).